

2026년 상반기 창원지역 고용동향

2026. 8

창원상공회의소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,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을 빠르게,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쉬움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시점

- 2026년 8월 기준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, 근속연수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(연령별, 제조업별, 전체산업)
- 고용보험 상실자의 상실사유

Ⅱ. 요약 및 시사점

◎ 창원지역 근로자 수, 증가세 지속

- 2026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근로자) 수는 전년동기 대비 1.4% 증가한 28만 3,681명으로, 증가세를 유지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(15만 5,552명)이 2.2%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고, 제조업(11만 4,532명)도 0.7%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. 반면 건설업(9,992명)은 4.3% 감소

◎ 제조업, 숙련인력 중심 구조 속 신규 유입은 위축

- 제조업 장기근속자(10년 이상) 비중은 30.3%(3만 4,738명)로 전체 산업 평균 19.9%(5만 6,315명) 대비 10.4%p 높아 숙련 인력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.
- 반면 제조업 신규취업자는 1,282명(-11.8%), 근속 3년 미만 근로자는 4만 7,934명(-2.9%)으로 제조업 신규 근로자 유입과 정착이 위축되고 있음.

◎ 고용 유동성은 회복, 채용은 경력·고령층 중심

- 전체 취업자 수(2.4%)와 퇴직자 수(2.4%)가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로 전환되며, 고용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유동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.
- 다만 증가는 경력취업자(3.2%), 특히 60세 이상(11.3%)이 주도하였고 신규취업자는 5,849명(-5.8%)으로 감소해, 채용 회복이 경력·고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◎ 계약·단기직 중심 퇴직 확대, 구조조정성 퇴직은 완화

- '계약만료 및 공사종료'는 1만 7,12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.5% 증가해 단기·계약직 중심의 퇴직이 확대됨. 반면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은 6,647명으로 6.3%, '폐업·도산'은 1,595명으로 27.3% 감소하여 경기발 구조조정성 퇴직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.
- '정년' 퇴직은 1,48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.9% 증가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퇴직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.

Ⅲ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6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1)에 가입한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8만 3,681명임. 이는 전년동기 대비 1.4% 증가한 수치임.
- 규모별로는 '300인 이상'이 7만 1,023명(+3.8%)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, '10인 이상 100인 미만' 11만 407명(+2.5%)도 증가세를 이어갔고, '10인 미만'은 6만 4,975명(+0.1%)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정체 국면에 머물. 반면 '100인 이상 300인 미만'은 3만 7,276명(-3.7%)으로 감소함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2 상반기	'2023 상반기	'2024 상반기	'2025		'2026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	
전 체	264,678 (2.7%)	270,874 (2.3%)	276,548 (2.1%)	279,706 (1.1%)	278,084 (1.4%)	283,681 (1.4%)
10인 미만	67,202 (1.9%)	67,325 (0.2%)	67,294 (0.0%)	64,937 (-3.5%)	65,891 (-4.2%)	64,975 (0.1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7,836 (3.0%)	102,098 (4.4%)	105,681 (3.5%)	107,673 (5.5%)	106,237 (3.8%)	110,407 (2.5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6,656 (5.3%)	37,063 (1.1%)	36,425 (-1.7%)	38,694 (4.4%)	37,907 (6.0%)	37,276 (-3.7%)
300인 이상	62,984 (1.7%)	64,388 (2.2%)	67,148 (4.3%)	68,402 (6.2%)	68,049 (1.0%)	71,023 (3.8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○ 2026년 상반기 기준 업종별로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고, 제조업도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감소함.

○ 창원지역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5만 5,55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.2% 증가하였고, 제조업 근로자 수는 11만 4,532명으로 0.7% 증가, 건설업은 9,992명으로 4.3% 감소하였음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2 상반기	'2023 상반기	'2024 상반기	'2025		'2026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	
전 체	264,678 (2.7%)	270,874 (2.3%)	276,548 (2.1%)	279,706 (1.1%)	278,084 (1.4%)	283,681 (1.4%)
제조업	110,525 (1.7%)	111,930 (1.3%)	113,950 (1.8%)	113,773 (-0.2%)	114,122 (0.5%)	114,532 (0.7%)
서비스업	140,599 (3.5%)	145,236 (3.3%)	148,836 (2.5%)	152,159 (2.2%)	150,279 (2.4%)	155,552 (2.2%)
건설업	10,274 (3.5%)	10,441 (1.6%)	10,485 (0.4%)	10,439 (-0.4%)	10,345 (-1.6%)	9,992 (-4.3%)
기 타	3,280 (3.1%)	3,267 (-0.4%)	3,277 (0.3%)	3,335 (1.8%)	3,338 (-1.4%)	3,605 (8.1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○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타 기계 및 장비'가 2만 9,914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8,395명, '전기장비' 1만 7,326명, '기타 운송 장비' 1만 1,388명, '1차 금속' 1만 2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업종별 증감률은 '기타운송장비'(+8.4%), '금속가공제품'(+4.7%), '기타 기계 및 장비'(+2.6%), '1차 금속'(+1.8%), '식료품'(+1.1%) 등은 증가하였고, '전기장비'(-4.6%), '의료·정밀·광학기기·시계'(-3.2%)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(-2.7%), '고무 및 플라스틱'(-1.5%), '전자부품'(-0.6%), '기타'(-0.9%) 등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2	'2023	'2024	'2025		'2026
	상반기	상반기	상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
제조업	110,525 (1.7%)	111,930 (1.3%)	113,950 (1.8%)	113,773 (-0.2%)	114,122 (0.5%)	114,532 (0.7%)
기타 기계 및 장비	29,493 (0.9%)	29,729 (0.8%)	29,172 (-1.9%)	29,159 (0.0%)	29,265 (0.0%)	29,914 (2.6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6,935 (-0.2%)	18,123 (7.0%)	19,086 (5.3%)	18,897 (-1.0%)	18,773 (-0.7%)	18,395 (-2.7%)
전기장비	18,198 (6.4%)	18,034 (-0.9%)	18,535 (2.8%)	18,160 (-2.0%)	17,689 (-2.6%)	17,326 (-4.6%)
기타운송장비	9,179 (-4.0%)	9,756 (-6.3%)	10,116 (-3.7%)	10,509 (3.9%)	10,801 (5.2%)	11,388 (8.4%)
1차 금속	9,615 (1.2%)	9,806 (2.0%)	10,005 (2.0%)	10,059 (0.5%)	10,250 (0.3%)	10,244 (1.8%)
금속가공제품 (기계 및 가구 제외)	8,193 (3.0%)	8,706 (6.3%)	9,028 (3.7%)	9,133 (1.2%)	9,316 (2.3%)	9,559 (4.7%)
전자부품	7,259 (2.9%)	6,985 (-3.8%)	7,005 (0.3%)	7,251 (3.5%)	7,278 (4.3%)	7,209 (-0.6%)
식료품	1,763 (4.2%)	1,792 (1.6%)	2,119 (18.2%)	2,263 (6.8%)	2,366 (7.9%)	2,288 (1.1%)
의료, 정밀, 광학기기, 시계	3,288 (-7.4%)	2,354 (-28.4%)	2,315 (-1.7%)	2,118 (-8.5%)	2,102 (-7.8%)	2,050 (-3.2%)
고무 및 플라스틱	1,440 (-12.5%)	1,504 (4.4%)	1,443 (-4.1%)	1,501 (4.0%)	1,533 (6.8%)	1,479 (-1.5%)
기타	5,162 (0.4%)	5,141 (-0.4%)	5,126 (-0.3%)	4,723 (-7.9%)	4,749 (-1.1%)	4,680 (-0.9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'가구', '가죽·가방 및 신발', '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', '비금속 광물제품', '섬유제품(의복제외)', '음료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', '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', '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', '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'을 포함함.

○ 창원지역 근속연수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'1년 미만'이 7만 6,820명으로 가장 많았고, '1년~3년' 7만 1,256명, '5년~10년' 4만 1,874명, '3년~5년' 3만 7,416명, '10년~15년' 2만 3,2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을 의미하는 10년 이상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산업은 19.9%(5만 6,315명), 제조업은 30.3%(3만 4,738명)로 제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전체산업 대비 10.4%p 더 높았음. 이는 제조업이 여전히 숙련 인력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냄.

근속연수별 피보험자 수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4 상		'2025 상		'2026 상	
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
전체	276,548 (2.1%)	113,950 (1.8%)	279,706 (1.1%)	113,773 (-0.2%)	283,681 (1.4%)	114,532 (0.7%)
1년 미만	79,484 (1.5%)	24,478 (1.3%)	76,228 (-4.1%)	20,947 (-14.4%)	76,820 (0.8%)	20,837 (-0.5%)
1년 - 3년	69,460 (6.1%)	25,984 (14.6%)	72,519 (4.4%)	28,429 (9.4%)	71,256 (-1.7%)	27,097 (-4.7%)
3년 - 5년	30,347 (-1.3%)	9,972 (-4.0%)	33,842 (11.5%)	12,654 (26.9%)	37,416 (10.6%)	15,590 (23.2%)
5년 - 10년	43,356 (0.4%)	19,445 (-6.0%)	41,928 (-3.3%)	17,124 (-11.9%)	41,874 (-0.1%)	16,270 (-5.0%)
10년 - 15년	22,639 (0.3%)	12,765 (0.2%)	23,294 (2.9%)	13,181 (3.3%)	23,235 (-0.3%)	12,899 (-2.1%)
15년 - 20년	12,064 (7.0%)	7,305 (5.7%)	12,773 (5.9%)	7,659 (4.8%)	14,035 (9.9%)	8,424 (10.0%)
20년 - 25년	7,144 (3.2%)	4,551 (-0.3%)	7,008 (-1.9%)	4,396 (-3.4%)	7,274 (3.8%)	4,474 (1.8%)
25년 - 30년	6,233 (-8.5%)	4,871 (-9.7%)	5,787 (-7.2%)	4,380 (-10.1%)	4,924 (-14.9%)	3,504 (-20.0%)
30년 이상	5,821 (3.9%)	4,579 (3.3%)	6,327 (8.7%)	5,003 (9.3%)	6,847 (8.2%)	5,437 (8.7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()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

- 창원 서비스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가 4만 7,698명으로 가장 많았고, '도·소매업' 1만 6,215명, '사업시설 관리·지원' 1만 5,986명, '전문, 과학 및 기술' 1만 4,741명, '숙박·음식점' 1만 1,154명, '운수·창고' 1만 554명, '교육' 1만 474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2 상반기	'2023 상반기	'2024 상반기	'2025		'2026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	
서비스업	140,599 (3.5%)	145,236 (3.3%)	148,836 (2.5%)	152,159 (2.2%)	150,279 (2.4%)	155,552 (2.2%)
보건업 사회복지	39,070 (5.6%)	40,393 (3.4%)	43,178 (6.9%)	45,758 (6.0%)	44,714 (4.2%)	47,698 (4.2%)
도·소매업	15,677 (3.5%)	15,963 (1.8%)	15,703 (-1.6%)	15,809 (0.7%)	16,304 (4.1%)	16,215 (2.6%)
사업시설 관리·지원	14,767 (4.7%)	15,949 (8.0%)	16,345 (2.5%)	15,769 (-3.5%)	15,568 (-3.1%)	15,986 (1.4%)
전문, 과학·기술	13,680 (4.1%)	14,238 (4.1%)	14,479 (1.7%)	14,806 (2.3%)	14,490 (-0.4%)	14,741 (-0.4%)
숙박·음식점	9,383 (8.8%)	10,003 (6.6%)	10,467 (4.6%)	10,569 (1.0%)	10,833 (3.2%)	11,154 (5.5%)
운수·창고	10,288 (-1.1%)	10,496 (2.0%)	10,635 (1.3%)	10,398 (-2.2%)	10,483 (3.3%)	10,554 (1.5%)
교육	9,474 (2.8%)	9,923 (4.7%)	10,243 (3.2%)	10,635 (3.8%)	10,496 (4.4%)	10,474 (-1.5%)
협회·단체 수리·기타	6,238 (2.3%)	6,307 (1.1%)	6,295 (-0.2%)	6,383 (1.4%)	6,033 (-1.8%)	6,387 (0.1%)
공공·국방· 사회보장	6,109 (-1.6%)	6,046 (-1.0%)	5,825 (-3.7%)	5,981 (2.7%)	5,143 (1.4%)	6,057 (1.3%)
부동산	5,503 (-2.9%)	5,488 (-0.3%)	5,388 (-1.8%)	5,522 (2.5%)	5,768 (7.6%)	5,747 (4.1%)
금융·보험	4,932 (-2.8%)	4,925 (-0.1%)	4,901 (-0.5%)	4,876 (-0.5%)	4,854 (-1.4%)	4,815 (-1.3%)
정보통신	2,741 (-1.2%)	2,778 (1.3%)	2,723 (-2.0%)	2,836 (4.1%)	2,884 (4.9%)	2,885 (1.7%)
예술·스포츠 ·여가	2,737 (11.6%)	2,727 (-0.4%)	2,654 (-2.7%)	2,817 (6.1%)	2,709 (2.1%)	2,839 (0.8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2026년 상반기 기준 노동이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7만 5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.4% 증가하였고, 퇴직자 수는 6만 3,644명으로 2.4% 증가하였음.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3.2% 증가한 6만 4,682명, 신규취업자는 5.8% 감소한 5,849명임.
- 취업자·퇴직자 수가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되어,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이 함께 활성화되는 흐름을 보임. 다만 신규취업자는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경력취업자는 3.2% 증가하여, 채용 회복이 경력직·재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.

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2 상반기	'2023 상반기	'2024 상반기	'2025		'2026 상반기
				상반기	하반기(누적)	
취업자	71,918 (5.9%)	71,982 (0.1%)	70,818 (-1.6%)	68,883 (-2.7%)	123,388 (-0.9%)	70,531 (2.4%)
신규취업자	8,153 (4.5%)	8,605 (5.5%)	6,776 (-21.3%)	6,209 (-8.4%)	10,956 (-7.4%)	5,849 (-5.8%)
경력취업자	63,765 (6.1%)	63,377 (-0.6%)	64,042 (1.0%)	62,674 (-2.1%)	112,432 (-0.2%)	64,682 (3.2%)
퇴직자	67,317 (9.2%)	64,596 (-4.0%)	63,522 (-1.7%)	62,132 (-2.2%)	117,518 (-0.2%)	63,644 (2.4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연령별 취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, 신규취업자는 전 연령층(29세 이하 -3.7%, 30대 -15.0%, 40대 -21.1%, 50대 -8.9%, 60세 이상 -3.7%)에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고용 진입이 위축된 양상을 보임.
- 반면, 경력취업자 시장에서는 60세 이상이 11.3%, 50~59세가 2.2% 증가하여, 고령층에서 퇴직 이후 경력을 살려 다시 일자리를 찾는 '재취업 선순환' 현상이 타 연령대보다 뚜렷하게 나타남.

연령별 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동기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4 상		'2025 상		'2026 상	
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
취업	70,818 (-1.6%)	19,772 (-6.6%)	68,883 (-2.7%)	17,042 (-13.8%)	70,531 (2.4%)	16,758 (-1.7%)
신규취업자	6,776 (-21.3%)	1,775 (-43.4%)	6,209 (-8.4%)	1,453 (-18.1%)	5,849 (-5.8%)	1,282 (-11.8%)
29세 이하	4,139 (-24.9%)	1,245 (-38.2%)	3,981 (-3.8%)	1,055 (-15.3%)	3,833 (-3.7%)	943 (-10.6%)
30~39세	550 (-52.2%)	289 (-64.3%)	513 (-6.7%)	218 (-24.6%)	436 (-15.0%)	159 (-27.1%)
40~49세	300 (-15.7%)	80 (-46.3%)	251 (-16.3%)	66 (-17.5%)	198 (-21.1%)	51 (-22.7%)
50~59세	588 (-13.9%)	78 (-14.3%)	542 (-7.8%)	68 (-12.8%)	494 (-8.9%)	69 (1.5%)
60세 이상	1,199 (32.3%)	83 (15.3%)	922 (-23.1%)	46 (-44.6%)	888 (-3.7%)	60 (30.4%)
경력취업자	64,042 (1.0%)	17,997 (-0.1%)	62,674 (-2.1%)	15,589 (-13.4%)	64,682 (3.2%)	15,476 (-0.7%)
29세 이하	12,016 (-6.9%)	4,013 (-12.0%)	11,082 (-7.8%)	3,402 (-15.2%)	10,904 (-1.6%)	3,242 (-4.7%)
30~39세	10,804 (-2.0%)	4,256 (1.2%)	10,359 (-4.1%)	3,682 (-13.5%)	10,391 (0.3%)	3,565 (-3.2%)
40~49세	12,304 (-2.0%)	4,102 (5.0%)	11,225 (-8.8%)	3,329 (-18.8%)	11,144 (-0.7%)	3,168 (-4.8%)
50~59세	12,715 (2.9%)	3,273 (2.9%)	12,664 (-0.4%)	2,775 (-15.2%)	12,944 (2.2%)	2,915 (5.0%)
60세 이상	16,203 (11.4%)	2,353 (8.2%)	17,344 (7.0%)	2,401 (2.0%)	19,299 (11.3%)	2,586 (7.7%)
퇴직	63,522 (-1.7%)	18,219 (-3.6%)	62,132 (-2.2%)	16,560 (-9.1%)	63,644 (2.4%)	16,141 (-2.5%)
29세 이하	13,017 (-7.4%)	3,664 (-10.7%)	11,964 (-8.1%)	3,164 (-13.6%)	11,609 (-3.0%)	2,867 (-9.4%)
30~39세	10,541 (-4.3%)	3,869 (-4.8%)	9,999 (-5.1%)	3,412 (-11.8%)	10,234 (2.4%)	3,345 (-2.0%)
40~49세	11,947 (-1.8%)	3,908 (0.4%)	10,925 (-8.6%)	3,360 (-14.0%)	10,731 (-1.8%)	3,151 (-6.2%)
50~59세	12,487 (-0.4%)	3,360 (-2.9%)	12,394 (-0.7%)	3,091 (-8.0%)	12,709 (2.5%)	3,046 (-1.5%)
60세 이상	15,530 (4.8%)	3,418 (1.5%)	16,850 (8.5%)	3,533 (3.4%)	18,361 (9.0%)	3,732 (5.6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행정통계를 확정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* ()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

○ 2026년 상반기 기준 퇴직 사유별로 살펴보면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가 3만 4,380명(비중 54.0%)으로 가장 많았고, '계약만료 및 공사종료' 1만 7,129명(26.9%),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 6,647명(10.4%), '폐업·도산' 1,595명(2.5%), '정년' 1,483명(2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전년동기 대비로는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(2.8%)와 '계약만료 및 공사종료'(7.5%)는 증가한 반면,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(-6.3%)과 '폐업·도산'(-27.3%)은 감소함.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성 퇴직 압력은 완화된 반면, 단기·계약직 중심의 고용구조에서 비롯된 퇴직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.

2026년 상반기 사유별 퇴직자 수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퇴직 사유	2026년 상		2025년 상		전년대비 증감률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34,380	(54.0%)	33,438	(53.8%)	2.8%
계약만료, 공사종료	17,129	(26.9%)	15,929	(25.6%)	7.5%
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6,647	(10.4%)	7,091	(11.4%)	-6.3%
폐업, 도산	1,595	(2.5%)	2,195	(3.5%)	-27.3%
정년	1,483	(2.3%)	1,387	(2.2%)	6.9%
이중고용	917	(1.4%)	658	(1.1%)	39.2%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670	(1.1%)	675	(1.1%)	-0.7%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	391	(0.6%)	305	(0.5%)	28.2%
고용보험 비적용	238	(0.4%)	293	(0.5%)	-18.8%
분류불능	194	(0.3%)	161	(0.3%)	20.5%
계	63,644	(100%)	62,132	(100%)	2.4%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()는 전체 퇴직자 중 비중